

1991년도 전자 정보 통신 국제학술회의 (ICEIC' 91)를 마무리 하면서

洪 勝 弘

仁荷大學校 工大 電子工學科 教授

조국 분단 이후 처음으로 전자, 정보, 통신 관련 남북학자들이 자리를 같이하는 1991년도 전자 정보 통신 국제학술회의(ICEIC'91)가 중국의 연변대학주최, 대한전자공학회, 연변 자동화학회, 연변전자공학회 후원으로 중국 연길시의 연변대학 공학관에서 8월 22일-23일 2일간 130여명의 동포과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 국제학술회의에는 한국으로부터 45명, 북한학자 10명, 미국 5명, 일본 3명, 소련 3명, 중국 45명이 참석하여 컴퓨터 시스템 및 응용, 컴퓨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통신, 교환, 반도체 및 CAD, VLSI, 회로 및 시스템 제어, 패턴인식, DSP 등 전자공학 전문분야에 걸쳐 1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남북 학자들의 화기 애애한 교류는 정치적 통일에 앞서서 민간차원에서의 교류를 더한층 활발히 할 수 있는 시금석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공학분야로서는 처음으로 자리를 같이하게 된 이 학술회의는 남북간의 이질감 해소는 물론 남북공동으로 전자공학 분야의 기술개발의 동기를 마련하게 되어 어느 학술회의 보다 더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번의 학술회의가 개최된 것은 본 학회의 장기적인 사업의 일환으로써 1989년부터 계획되어 1990년 초에 당시 학회장이 이상배 교수(연세대)에 의해 실행에 옮길 것을 결정하고 체신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중국에 거주하는 동포학자들과의 학술교류를 우선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1990년 9월초에 이상배 당시 회장, 이태원(고려대 교수) 국제위원장, 필자 등이 중국 연변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동년 11월 본회 추계학술회의에 18명의 중국 동포학자들을 초청하기로 협의하여 실질적인 학술교

류를 단행했다.

이를 계기로 학술교류 행사를 정기화 함은 물론 국제화하여 북한 학자들을 포함한 여러나라의 동포 학자들도 초청하여 학술토론의 장을 마련하자는데 합의를 했다.

첫번째 학술행사로 1991년 8월에 연변대학주최(조직위원장 김종천 연변대 부총장, 후에 김규환 연변대학 계산기 연구소장으로 변경되었음)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되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추진과 프로그램 편성, 진행의 세부사항, 논문집의 인쇄등은 대한전자공학회에서 담당하기로 주최측과 협약하고 참가대상자 수를 중국측 40명, 한국측 40명, 북한측 10명, 소련 3명, 미국 5명, 일본 5 명으로 결정하여 1991년 1월부터 논문모집 안내를 내고 구체적인 학술행사 준비를 진행했다.

본 회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1차 논문모집에서 논문 편수 112편, 176명의 회원들이 학술회의 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교통편, 숙박관계, 중국과 북한측의 참여 인원에 대한 형평문제등으로 한국측의 참가 인원을 처음 결정한대로 40명으로 제한하여 줄 것을 주최측에서 요구하여 왔다. 본 학술회의 참가 자격은 학회 정회원으로 하며, 회비 미납에 의한 정권 회원은 다음의 기회로 참여하여 줄 것을 권유하며, 발표자는 연구소 선임급 이상, 대학은 교수들이 직접 발표하도록 권유한다는 본회 이사회의 결정 사항에 따라 참가신청 회원들에게 양해를 구한 결과 최종 참석인원이 76명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중국측의 제한 인원을 훨씬 초과하였으므로 다시 중국측과의 끈질긴 설득으로 74명 전원이 참가하는 길을 마련하였으나 최종적인 논문제출과 출국수속과정에서 45명의 회원만이 참석하게 됐다.

중국측으로의 단체여행은 원칙적으로 30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출국수속 과정에서도 난관이 많았으나 전자공학 분야의 남북교류라는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관련부처의 협조로 각 개인별 출국수속을 진행하여 45명이 출국하게 되었다.

예정된 남북학자 전원이 참가하여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도기관의 발표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전원이 노력할 것을 결정하고 통일원으로부터 전체 참가자들의 북한주민 접촉허가를 7월 초에 받아 묵묵히 대회의 성공만을 위하여 준비를 했다.

그동안 수 100통의 FAX를 이용하여 진행과정을 중국의 주최측과 연속적으로 협의했으나 중국이라는 특수사정과 국제학술행사의 경험 부족에 의한 복합적인 사정으로 중국과 북한, 소련의 발표논문 제목과 발표자의 인적사항 등의 입수가 늦어져 8월초에야 프로그램 작성과 논문집 인쇄를 했다. 또한 중국측으로부터의 초청장 발급이 늦어 참가 회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된 결과가 되었고 북한측 조직위원 명단접수가 되지 않아 결국 최종 프로그램 상에 북한측 조직위원의 이름을 ○○○으로 표시할 수 밖에 없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다.

어느 정도의 출국 수속이 진전된 8월 12일에 한국측 참가자들의 준비회의를 소집하여 프로그램 및 논문집을 배포하였다.

학술대회의 위만한 진행준비를 위하여, 그리고 금년 초부터 추진하여 온 1992년도 하르빈에서 개최될 국제학술회의(HICEC '92)에 관한 것을 중국측과 협의하기 위하여 선발대로 임제탁 회장(한양대), 이태원 국제위원장(고려대), 임인철 부회장(한양대), 필자가 8월 14일 오전 9시 김포를 출발하여 홍콩, 북경을 경유하여 오후 10시 30분에 목적지인 하르빈 공항에 도착하였다. 하르빈 공업대학의 홍병룡 교수가 준비해 온 마이크로 버스로 시내의 호텔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버스의 고장으로 지나가는 차량도 없고 전등 불빛 하나 없는 만주별관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1시간 30분의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다른 차를 빌려타고 호텔에 도착한 것이 새벽 1시경 이었다. 회장단 일행보다 6일전에 상해 등지를 거쳐 미리 호텔에 도착한 김영권 부회장(건국대), 김형래 학술위원(건국대)과 합류하여 8월 15일 오전 10시 하르빈 공업대학 회의실에서 중국 동북 3성(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 전자학회 및 계산기학회 회장단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

다. 1992년도에 하르빈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제학술회의 개최일을 8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대회명칭은 『1992년 하르빈 전자 및 컴퓨터 국제회의(HICEC '92)』로 정하고 한국, 중국, 북한, 미국, 소련, 캐나다, 일본, 대만등 150여편의 논문이 발표 되도록 하며 주최는 중국과 한국 공동으로 합과 동시에 회의경비 부담도 양국에서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회의를 마친 후 오후에는 하르빈시 및 흑룡강성의 전자공업국장 및 전자관련 회사 사장단들과의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가져 양국간의 전자산업부문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오후 늦게 하르빈역과 송화강을 견학하였다. 하르빈역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겨 볼 틈도 없이 사진촬영만 하고 송화강으로 향하였다. 마침 송화강은 20일전의 대홍수로 인하여 침수된 곳이 많고 아직 물이 빠지지 않아 강 건너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다와 같았다. 우리 일행은 다시 하르빈 공업대학으로 돌아와서 이 대학의 부총장을 예방하여 담소하였다. 1920년에 러시아에 의해 개교된 하르빈 공대는 만주지역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 러시아의 교육제도와 일본의 교육제도에 의해 교육되어 오다 2차대전 종전후에 급속도로 발달하여 현재는 쓸이 없을 정도의 넓은 캠퍼스에 470,000m²의 건물과 5,020명의 교직원, 10,000여명의 재학생, 석사학위과정 59개 학과, 박사학위과정 22개, 14개의 각종 연구소를 가진 중국에서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중의 하나이다.

8월 16일에는 중국 산유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대경(大慶) 유전지대로 향하였다. 하르빈에서 자동차로 5시간을 달려 도착한 대경은 고층빌딩이 비교적 많은 도시이다. 시가지 전체가 유전지대인 것을 말해 주는 듯 고층 아파트 현관 옆에도 원유를 퍼 올리는 펌프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시가지 전체가 펌프장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보고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일행들에게는 부러웠다. 하르빈에서 서북방향으로 국도를 따라 대경에 도착할 때까지 산을 볼 수 없는 문자 그대로 광활한 만주 벌판이었다. 대경유전 관리회사의 사장이 직접 안내를 해주어서 시내에 있는 석유관계 연구소 및 기념관, 원유생산과 송유과정등을 비교적 상세한 부분까지 견학했다. 시내에는 수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가라오케』장이 있으며 곳곳에서 고층 아파트와 빌딩이 건설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원유생산의 영향을 누리고 있는 도시인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르빈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두차레나 차량이

고장을 일으켜 우리 일행이 타고간 차를 포기하고 택시를 대절하여 하르빈까지 오는 어려움을 또 한차례 겪어야 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4시간이 늦은 새벽 2시에 호텔에 도착하였다. 8월 17일 하르빈 공업대학 부총장 초청 오찬을 끝내고 오후에는 작년에 본회 추계학술대회때 특별 강연을 해 주었던 황특성 교수(센서연구소 소장)의 안내로 후퉁강대학을 견학하였다. 주로 센서관계 연구를 중심으로 견학하였는데 석유관련 센서를 위시하여 실용화가 기대되는 연구가 많았다.

오후 늦게 본회 회장단은 한국측 전체 참가자들과 합류하기 위하여 북경으로 향하고 이태원 국제위원장과 필자는 8월 18일 새벽 버스를 이용하여 대평원을 5시간 달려 장춘(長春)에 도착하였다. 장춘은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비교적 큰 도시로 중국의 마지막 황제 『부이』가 북경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있었던 역사적인 도시이다. 그동안 하르빈에서 고생스러운 일이 많아 장춘에서는 최고의 호텔에 투숙할 것을 사정하고 택시 기사에게 안내를 부탁하였다. 우리들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1950년대 형식의 튼튼대는 택시를 타고 최고의 호텔인 『화교호텔』에 도착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상 요금의 3배 정도인 바가지 요금(중국화제 30원, 1\$에 5.2원)을 물었다. 도착한 호텔은 최근에 신축된 영어가 통하는 고급호텔(일박 175원) 이긴 하나 더운물 사정이 좋지 않았다. 그동안 수도 사정이 좋지않아 샤워를 하지 못하여 샤워부터 하기로 하고 더운물을 틀어 놓았으나 검은 색깔의 기름물이 계속나와 짐식식사부터 하기로 하고 식당을 찾았다. 계속된 기름기 많은 중국 음식을 먹어 배탈도 나고 하여 양식을 주문하였는데 식사값이 방값과 거의 같은 170원이었다. 한국측 전참가자들은 연결행 비행기 사정이 좋지 않아 8월 19일 장춘에서 임시기착지로 1박한 후 다음날 연결되는 비행기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므로 우리 일행의 도착일정과 숙박장소를 확인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연이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장춘에 기주하는 동포의 통역이 필요했다. 작년 본회의 추계 학술대회에 참가했던 길림공업대학의 신한국 교수의 도움을 청하기로 하여 연구실로 전화 연락하였으나 일요일이어서 통화가 되지 않았다. 신교수 자택에는 전화가 없으므로 짐적 자택을 방문하는 방법뿐이었다. 중국에서는 대개 직장 구내 혹은 가까운곳에서 소속 직장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대학을 방문하면 신교수를 만날 수 있다는 한가닥의 기대로 시내지도를 구입하고 길

림공업대학으로 직접 방문했다. 마침 연구실에 조교가 있어서 신교수 자택까지 안내를 받아 신교수를 만날 수 있었는데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다.

19일 아침부터 본회 참가자들의 이곳 장춘도착 시간과 숙박 호텔을 확인하고자 수시간동안 전화에 매달렸으나 우리 일행들의 일정과 숙박을 책임지고 있는 중국 국제여행사의 장춘분소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필자의 연결까지의 교통편 예약 상황도 분명하지 않아 본회 참가자들과는 별도로 개별 항공권을 구입하였다. 여하간에 본회 전 참가자들의 장춘 도착은 확실하므로 길림공대의 연구실을 견학하고 오후에는 중국 마지막 황제가 집무하였던 곳을 둘러 보았다. 1955년에 자동차 관련 공대로 출발한 길림공업대학은 740,000m²의 부지에 320,000m²의 건물, 재학생 6,000명, 1,200여명의 교수진을 가진 명실상부한 공과대학이다. 광응용기술연구소를 주로 견학하고 전자공학과의 실험실을 둘러 보았는데 우리나라 일반 공과대학 보다 충실한 실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시설, 교재등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었다.

저녁 늦게 전 참가자들이 필자가 숙박하는 호텔에 도착하였다. 결국은 화교호텔에 예약되어 있는 것을 인출하는 여행사에서라도 모르고 있었던 꼴이 되었다. 어제까지도 확인되지 않던 북한학자들의 중국 도착 확인을 연결로부터 알려졌다.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한 후 20일 아침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장춘공항으로 향하여 2편의 프로펠라기(44인승)에 분승하여 9시경 연길공항에 도착했다. 곧바로 참가자 전원은 장백산(백두산)으로 향하고 이태원 국제위원장과 필자는 곧바로 연변대학 초대소에 여장을 풀고 학술대회 준비점검에 들어갔다. 우선 북한학자들의 프로그램 변경에 관한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수정을 시도하였으나 짜여진 시간의 변경은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단 북측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기로 하여 오랜시간 동안 프로그램 변경수정을 하고 변경에 대한 정오표의 부사를 의뢰하고 나서 연결 시내에 있는 서시장으로 향하였다. 작년에도 이곳을 방문하였을 때 식당이 불결하여 조선족들의 음식과 생활용품을 주로 취급하는 서시장에서 떡과 과일등을 구입하여 식사대용으로 한 경우가 있어서 흰떡과 과일, 음료수를 구입하여 숙소의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연변대학 초대소는 중국측 참가자들과 북한측 참가자들이 숙박할 장소로 되어 있는 중급 호텔정도로, 룸은 응접실

과 침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스위트 룸이었으나 역시 물이 나오지 않아 돌아올 때까지 샤워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맥주로 이를 닦아야 하는 고충이 많았는데 다행히 북측 인솔단장의 방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이들과의 접촉은 수월했다.

21일에도 회의장 점검을 위해 연변대학을 방문하여 발표장의 준비상황을 확인 했는데 국제행사를 치루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았다. 점검을 마치고 이태원 국제위원장, 필자, 그리고 북측 김영준 단장(김일성 종합대학 자동화학부장), 김성호 부단장(조선 과학원 수학연구소 프로그램 연구실장), 중국측 김규환 조직위원장이 자리를 같이하여 예비회담을 가져 운영상의 문제점과 중국측을 위한 만찬개회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거의 반세기만에 전자공학자들이 처음으로 대좌하는 자리여서 긴장되기도 했고, 북측에서 산업체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논란이 되었으나 약간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로가 이해하고 협조하려는 분위기로 바뀌어 30분만에 예비회담을 마쳤다. 산업체 프로그램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중국측과 북한측의 산업체에서도 산업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초기부터 권유하였으나 통신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중국과 북한은 참여하지 못하고 한국측 5개 기업만이(금성사, 삼성전자, 삼보 컴퓨터, 현대전자, 서두로직) 참여하고 금성사, 삼성전자, 현대전자가 각각 30분간 강연시간을 가지게 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대하여 북한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예비회담에서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각 기업체의 발표 시간대의 배려와 산학협동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여 결국 북측 김영준 단장의 이해로 문제점을 풀 수 있었다. 남북, 그리고 중국학자들의 대표들이 자리를 같이 하는 만찬을 한국측 숙소인 『백산호텔』 대연회장에서 7시 30분부터 개최하며, 만찬의 성격은 남북 공동으로 중국측 학자들을 손님으로 초대하여 학술회 준비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로 하며, 남측 13명, 북측 10명, 중국측 17명 총 4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한국측 참가자들은 이날 백두산 등정 후 연길로 돌아오는 도중이었는데 버스 2대중 1대의 고장으로 남측은 회장단을 비롯한 7명만이 참석한 만찬이었으나 분단 후 처음으로 술잔을 마주치고 『우리의 소원』, 『아리랑』, 『도라지』 등이 우렁찬 합창으로 통일된 조국의 분위기를 체험하는 듯한 감격적인 만찬장이었다. 이날의 만찬 연회에서 남북 대표는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연변대학 김종천 부총장에게 남북공동으로

선물을 증정하기도 했다. 이에 김종천 부총장은 답사를 통하여 『남북한 서로가 합심하여 이와 같은 학술회의를 평양, 서울에서 교대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이어 김영준 북측 단장도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특히 남과 북의 과학자, 그리고 해외에 있는 과학자들이 자리를 같이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전제한 후 『앞으로 이와 같은 회의가 연변에서 뿐만 아니라 평양과 서울, 미국과 일본에서 계속하여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하였다.

버스의 고장으로 2시간 늦게 도착한 박승배 교수를 비롯한 본 학회 임원들이 합류하여 10시 10분까지 진행된 만찬은 여러차례의 축배와 아울러 『우리의 소원』, 『아리랑』 등 우렁찬 합창으로 이어져 통일된 조국의 분위기를 체험하는듯 감격적이었다. 만찬이 끝난 후 조금전까지의 열기가 사라지지 않아 연변대학 초대소 숙소에서 북측 김단장을 비롯한 조직위원장 등 6명의 남북학자들이 다시 자리를 같이하여 남북 교류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8월 22일 8시에 학술회 진행에 대한 조직위원회 회의가 연변대학 초대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각국의 대표겸 조직위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이날 오전 9시 개최장소인 연변대학 연구동 강당은 각국에서 참여한 동포 학자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연변대학 황원삼 교수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조직위원장 김규환 교수(연변대 계산기연구소장)의 개회사, 각국 조직위원들의 소개, 김종천 연변대학 부총장의 축사, 북측 김영준 단장의 축사, 대한전자공학회 임제탁 회장의 축사등 각계로부터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규환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제3의 물결, 제4의 기술혁신의 세찬 바람이 불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 과학분야를 통하여 선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 정보, 통신국제학술회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짐은 물론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 특히 남북학자들이 조국분단 이후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은 더 한층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김영준 북측단장은 「은 민족의 통일에의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환경속에서 우리민족의 과학자들이 비롯 이웃 국가에서나마 범 민족적인 학술교류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동포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학기술의 경험을 나누며 서로 도와 민족대단결에 앞장서자」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이와같은 학술회의를 통하



* 개회식에서 본 학회 임세탁 회장의 축사 모습



* 만찬장에서 남북한 학자들의 우애적인 교류 모습

어 시도를 위하여 마음을 넓혀가고 또 앞으로의 과학 기술 교류를 통하여 조국의 융성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우리 민족의 기개를 발휘하여 민족의 번영에 이바지하자"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어서 임세탁 회장은 「지금, 일찍이 열어보지 못한 이 학술대회를 통하여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쳐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의 주역이 되어야 함은 물론 조국 선진화의 역군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 행사가 조 선족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동포애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남북통일을 앞 당기는 조그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조국이 동방의 등불을 밝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축사가 끝난후 금성사, 삼성전자, 삼보 컴퓨터, 현대 전자, 서두모직에서 마련한 386PC 3대, 휴대형 컴퓨터 3대, CAD소프트웨어, 오디오 및 비디오 1세트등을 연변대학에 기증하는 순서를 가졌다.

이어서 북측 김성호 부단장의 「조선글 인식체계」에 기초연설을 끝으로 오전 프로그램을 마쳤다. 오후에는 임세탁 회장의 「한국의 전자산업의 전망」에 대한 기초연설, 그리고 중국의 기초연설에 이어 공학관의 각 발표장에서 각 분야별 학술발표가 진행되었다. 한국측과 중국측은 각각 40여편의 논문으로 전자, 정보, 통신의 분야에 걸쳐 발표했으며 북측은 10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북측의 연구논문은 「한글 필기체 문자인식」이나 「음성인식분야」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CCD에 대한 연구, 주파수확산통신에 대한 연구도 각각 1편씩 발표했다. 특히 북한측이 발표한 한글 인식에 관한 연구는 한글 필기체 인식이 96%로 매우 높으며 초당 18자를 인식할 수 있다고 밝혀 성능이 뛰어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앞으로는 98%의 인식율과 초당 25자 인식을 목표로 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기대되고 있다. 북측의 이 분야 연구수준은 적은 수의 연구논문만을 접하여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군사분야라던가 특수 분야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양시의 전화 번호자리가 현재 5자리이라는 것을 보면 전화기의 보급률은 높지 않고 민수용의 전자산업은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번에 참석한 북한 학자들은 김일성 종합대학, 과학원, 김책공대등에 재직하는 최고 수준의 학자들로 주로 수학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 관련학자들이 많은 것을 미루어 볼때, 앞으로 북한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열마선에는 김정일의 특별 지시에 의해 전자계산기 센터로 대형 건물을 세우고 컴퓨터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동화, 의료에의 응용, 한글의 필기체 인쇄체 인식, 음성 인식, 관리체계에의 연구를 지중하고 있으며 하드웨어는 IBM PC, NEC, EPSON등을 일본을 통하여 들어 온 것들이 많다고 전하였다.

중국의 전자공학 분야에서의 우리 동포들의 활약은 중국 과학원, 북경대학을 위시하여 각 대학, 연구기관 등의 컴퓨터분야에 종사하는 학자들이 많다는 것을 전해들었으며 또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길림대학 출신들의 활약이 두드러지 컴퓨터분야에서는 수적으로 거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다고 한다.

첫날의 학술발표가 끝나고 이어 오후 6시 30분에 두만강 호텔에서 학술대회 전체 참석자들을 위한 만찬회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의 소주보다 3배나 독한

중국 백주(배갈)를 매개체로하여 2시간 30분간 진행된 이날 만찬은 연변지역의 동포 가수들을 초청하여 가곡을 비롯하여 한국에서 유행되는 대중가요, 「아리랑」, 「도라지」, 「우리의 소원」 등이 열창되었으며 전 동포학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춤을 추며 합창을 하는 모습은 마치 남북통일의 현장처럼 느껴졌다. 필자는 이때 내년도 학술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 전참가자들의 동의를 유도하고 1992년도 조직위원장직을 김영준 북측단장에게 이 시점부터 이관하자는 것을 동의해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김단장의 소감을 피력하도록 했다.

김영준 단장은 답사를 통하여 「평양에서의 학술회의 개최는 우리의 희망이자 민족의 희망이요, 우리의 희망이자 해외동포들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염원이 어떤 일이 있어도 실현될 것이며 그때가서는 이 진수성찬보다 더 요란한 대 잔치를 벌리겠다」고 확약하였다.

만찬이 끝난후 김종천 연변대 부총장을 비롯한 주최측이 마련한 2차회가 「디스코 텍」이라는 장소에서 가져 또 한 차례 친밀감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김 부총장은 「여러분들이 출입하기에는 좀 거북스러운 나이트 클럽이기는 하나 중국 연변지역의 동포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 이 장소를 택하여 2차회를 가졌다」고 참석자들의 양해를 구하고 구성진 목소리로 「노들강변」을 밴드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때 모두가 숙연해지는 분위기였다. 북측 대표들은 처음에는 당황해 하였으나 윤상선 조선리과대학 부학장이 「새가 날아든다」는 민요를 불러 환호를 받은후 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어 모두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또 한번 남북교류의 장을 펼쳤다.

2차회가 끝나고 자정이 넘었는데도 다시 숙소에서 북측단장을 비롯한 조직위원이 모여 앞으로의 학술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남북대표들은 전자공학 및 컴퓨터관련 용어들이 통일돼 있지 않아 학술포럼에서의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용어통일에 관한 공동연구가 가장 시급하며 한글 인식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자는데 서로의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어서 북한측 전참가자에게 학회에서 마련한 선불과 본회에서 출판한 용어사전을 증정하고 북측의 용어사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23

일의 학술행사도 무사히 진행되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마무리를 하게 되어 모두가 만족감을 표시했다. 학술회의를 마무리하는 조직위원회 최종회의를 23일 오후 3시에 개최하여 다음의 학술행사를 위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92년도 평양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 명칭을 「ICEIC '92」로 하기로 협의했으며 앞으로 이 학술회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차분히 기다리며 우리 모두가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3일의 학술행사가 끝나자 바로 한국측 전원은 공항으로 향하여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는데 북측학자 전원이 저녁식사를 미루어 늦게 공항까지 환송을 나와 주어 또한번 뜨거운 동포애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항공편의 관계로 우리일행은 학술회의가 끝나자 바로 떠나게 되어 아쉬워 했다. 북한학자들을 포함한 동포학자들도 역시 대회 개최기간이 짧아 아쉬워 했으나 평양에서의 만남이 있음으로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날수 있도록 노력하자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비행기편의 연결을 위하여 심양에서 1박, 다시 북경을 경유하여 홍콩에서 1박후 25일 김포에도착하여 해산했다.

이번의 학술행사가 성공리에 진행된 것은 본회 회장단을 위시한 전 참가회원들, 그리고 학회 사무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중국 연변대학의 김종천 부총장, 김규환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연결 공항까지 환송을 나와 준 북측 김영준 단장을 위시한 북측 학자 전원의 우호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린다.

부가하여, 진행과정에서 각 언론기관에서 학술회의에 관한 자료요구가 많았음에도 워만한 실행과 예정된 참가자 전원의 참여를 위해 보도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한 것을 우선 이 글을 통하여 사과를 드린다. 결국 성공적인 대회를 가진 것에 대하여 보도기관과 출국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관련 담당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학술회의 참가희망 회원들이 많았으나, 교통편, 숙박관제등 중국 현지 사정의 여러가지 제약으로 참가희망 회원 전원을 수용하여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죄를 드립니다. 

學會消息

編輯部

理事會

■ 제 7차 이사회

일시 : 1991년 9월 6일(금) 오전 7시

장소 : 본 학회 회의실

 참석자 : 임제탁 김영권 박진욱 임인철 이상설
 홍승홍 강민호 김수중 나정웅 오길록
 차권현 최상규 송재극 최병욱

1. 성원보고
2. 회장인사
3. 회부보고
4. 토의 및 결의사항
 - 가. 신규회원 김형진 외 184명의 가입을 승인하다.
 - 나. 신규 특별회원 한국엔씨알(주)의 가입을 승인하다.
 - 다. 제 1회 인공지능, 신경망 및 퍼지시스템 종합 학술대회 및 전시회 공동개최를 승인하다.
 - 라. 제 1회 한·일 합동 컴퓨터 비전 학술대회의 개최 후원을 승인하다.
 - 마. '93 EXPO 관련 국제학술회의 개최 계획 통보에 관한 건은 회장단에 위임키로 하다.
 - 바. 1992년도 사업계획(안)은 추가사항 검토후에 차기 이사회에서 확정토록 결정하다.
 - 사. 학회 적립금 사용에 관한 건은 연구 검토후 결정 단계에서 다시 심의키로 하다.



* 제 7차 이사회의 모습

- 아. 후룡강성 국제 학술대회 개최 건은 후룡강성, 요령성, 길림성, 내몽고 공동으로 1992년 8월 14일, 15일 개최키로 하고, 경비는 한국, 중국이 절반씩 부담키로 하다. 아울러 상세한 합의사항은 추후에 결정키로 하다.
- 자. 학회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하여 광고 모집, 특별회원사 가입등에 좀 더 노력키로 하며 아울러 회비 미납자에 대한 학회지 발송을 보류키로 하다. 또한 각종 회의시 회의비 절약을 위하여 교통비를 지급키로 하다.
- 차. 기타

■ 제 6차 상임이사회

일시 : 1991년 9월 14일(토) 오전 7시

장소 : 삼성그룹 종합연수원 창조관(용인)

 참석자 : 김영권 박진욱 임인철 이상설 명정수
 홍승홍 이문기 최병욱